

포플린과 브로드

원단에서 위사 방향으로 발고랑 같이 나타나는 두둑을 이랑, 무 또는 리브(rib)라고 한다. 이러한 이랑이 있는 듯 없는 듯 낮고 가는 횡무를 갖는 것이 브로드클로스(broad cloth)이다. 이와는 달리 굵고 확실한 이랑을 나타내는 것을 그로스그레인(grosgrain)이라고 한다. 이랑이 가는 순서부터 나열하면 브로드, 단사 포플린, 타샤, 그로스그레인 순이며, 이랑이 적은 것은 역시 원단이 얇다고 보는 것이 맞다. 브로드라든가 단사 포플린, 타샤 등은 포플린의 중간 정도이다. 단사 포플린은 이름 그대로 단사를 이용하여 짠 품질이 다소 낮은 포플린이다. 이에 대하여 브로드는 고급 포플린을 말한다. 이랑이 극히 가늘기 때문에 섬세하고 치밀하여 실키한 광택을 가지고 있고 부드럽다. 브로드는 고급사인 60's 합사, 80's 합사, 100's 합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단사의 품질은 가는 실일수록 고급이고, 합사는 단사보다도 고급이다. 가는 단사는 주로 코머사(combed yarn)이고 이러한 코머 단사를 2올 꼬아 합쳐서 1올로 만든 것이 합사이다. 50's 이상의 단사 브로드는 세번수 단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급품질에 속한다.

같은 굵기라면 합사는 단사보다도 보통 2~2.2배 정도 강도가 높다. 합사 브로드는 강하게 제작되며, 얇은 잔털이 적어 광택이 있고, 균일한 천의 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단사 브로드는 이 보다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1. 포플린(poplin) : 평직 조직으로 조직하여 가로방향으로 이랑이 진 직물로써 제작은 가는 경사와 이보다 2~3배 굵은 위사를 사용한다. 제작 후 정련·표백해서 머셔화가공(mercerization)과 방축가공(sanforizing)을 하여 백색 천으로 사용하거나 염색 또는 날염으로 마무리를 한다.

면 포플린 외에 견, 양모, 레이온 또는 이들의 혼방직도 있으나, 면 포플린이 주로 사용된다. 백색천은 셔츠, 블라우스 감으로 사용되고, 바탕 염색천은 의복감으로, 견 포플린은 넥타이와 그 밖의 고급 의복감으로 사용된다. 이 견 포플린

은 16~17세기경 프랑스, 영국 등에서 고급 옷감으로서 처음으로 제작,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 브로드클로스(broadcloth) : 면사 또는 화섬방적사를 사용하여 평조직으로 짠 직물로서 일반적으로는 짜임이 촘촘하고 광택이 있으며 유연하게 직조된 포플린으로서, 가로방향 두둑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약칭 “브로드”라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경사를 위사보다 더 고운 실을 쓰고, 경사의 밀도를 위사의 밀도보다 크게 하여 직물면에 가로방향 두둑이 있는 것을 포플린(poplin)이라 하고, 경사와 위사에 같은 세번수를 써서 가로방향 두둑이 거의 보이지 않게 한 것을 브로드라고 하여 구별하지만, 영국에서는 브로드도 포플린에 포함된다.

사용하는 실에 따라 합사 브로드(경사와 위사가 모두 80's 또는 60's 합사), 세미브로드(경사는 합사, 위사는 단사로 80's, 100's가 많다.), 줄무늬 브로드(선염의 줄무늬 실로 세로무늬를 나타낸 것) 등이 있다. 또 무늬를 짜 넣은 무늬 브로드도 있다. 와이셔츠, 잠옷, 블라우스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포플린류는 경사의 올 수가 위사의 올 수보다도 1.5~3배 많다. 그러한 경사가 위사를 덮어 횡무와 광택을 나타내고 드레이프성을 발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사를 경사보다도 굵게 하여 횡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옥양목류와 더불어 평직물이면서도 옥양목류와는 다른 표면감을 주고 있다.